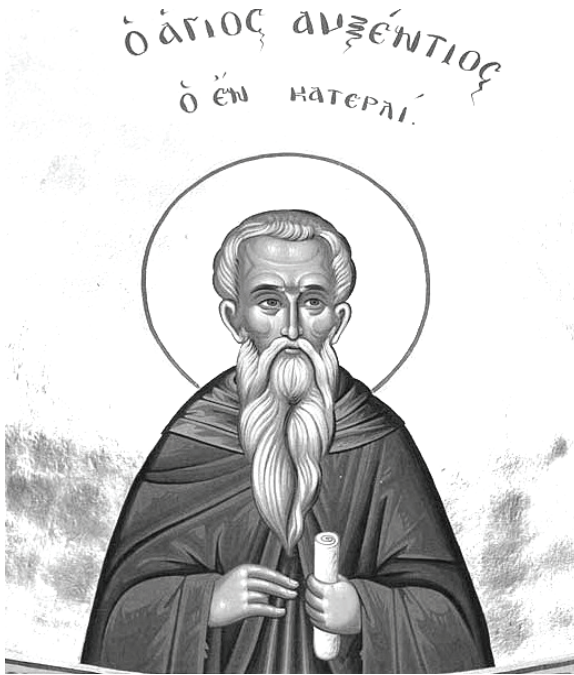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프크센디오스 수사

마태오 제17주일

성 하랄람보스 사제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제순교자 찬양송 / 84, B 26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사도경 : II 디모테오 2,1-10 / 봉독서 602
- 복음경 : 마태오 15,21-28 / 120, B 6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프크센디오스 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반대되는 끔찍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에만 신경을 쓰며 삽니다. 무엇이 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힘을 미치는 지위를 얻고, 권력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골몰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수도자로 사는 것, 수행자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도 생활은 옛날에나 이상적인 삶으로 취급받던

것, 심지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사회 참여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팽배하지만, 분명 교회의 영광은 수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거룩하게 살고 영적 경험이 풍부한 많은 위대한 교부들과 성직자들, 성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2월 14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프크센디오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신앙



오늘 복음에 언급되는 피로와 시돈은 원래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지만 구약 시대부터 징벌과 멸망의 예언을 많이 받았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실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주받고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마귀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딸을 치료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에 대해서도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소위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방인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가엾은 여인은 하느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마귀들린 딸을 치유하신 것은 바로 그 여인이 보여준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그 집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예수님이었음을 알아보았기에 자신의 딸을 낫게 하실 분이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은 바로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 후서 5,7에서 말씀하시길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본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불신이라는 장벽이 시험하려 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지혜의 말

세익스피어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왜 그런지 아는가?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
이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항상 상처를 남긴다.
인생은 짧다.
그런 이유로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마라.
말하기 전에 들어라.
쓰기 전에 생각하라고,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일을 해라.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아파하지 말고 느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하라.
죽기 전에 살아라.”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것
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프리오디온 시작

오는 2월 17일 주일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프리오디온 기간은 우리 정교회의 연중 전례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교우가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을 맞아 많은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프리오디온 첫 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출국

오는 2월 13일(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께서 세계총대주청의 주교회회의와 그리스의 데살로니키 대학교와 아테네 교회학교의 초청 강연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무사한 여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